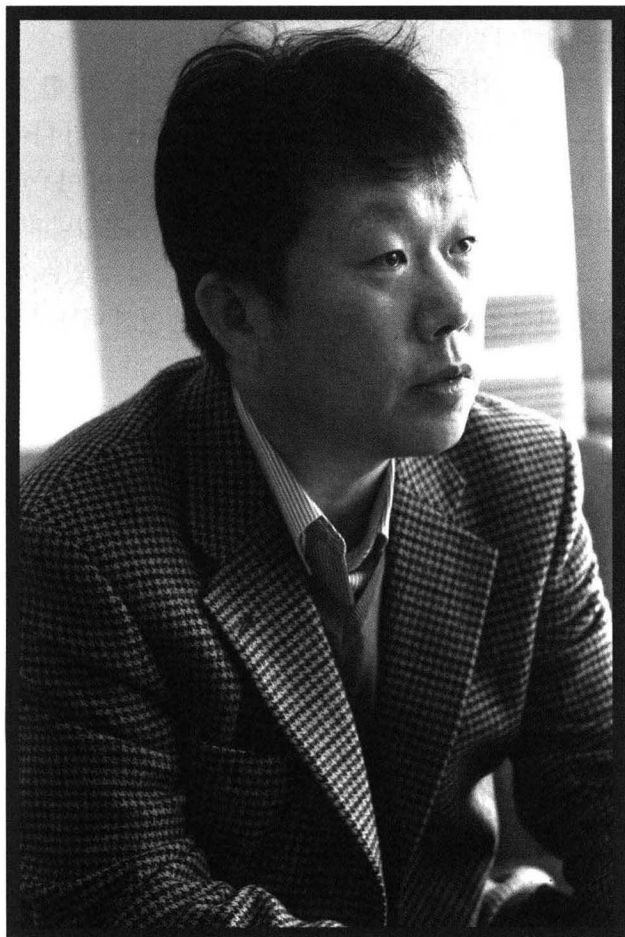


환경, 생명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새만금, 천성산 ... 한때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 중의 이슈였지만 이제는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름이다. '대한민국은 공사 중' 이라 했던 한 환경운동가의 말따라나 우리 국토는, 아니 환경이라는 이름의 아젠다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늘 '삽질' 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약으로 오염된 대지가 회복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농부들이 말하더라"는 이야기로 서두를 꺼낸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 올해로 다섯 해를 맞은 '환경책 큰잔치' 의 실행위원장으로 해마다 수고하는 그는, 오염된 대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환경책 큰잔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다.

PPM, COD 등 기준치는 임의적 기준일 뿐

"늘 봄에 했는데,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니까 더 좋은데요."

해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어김없이,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도 환경책 큰잔치를 열기를 4년. 그러나 올해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라는 악재 아닌 악재를 만났다.

박병상 소장은 "요란한 구호가 무책임하게 난무할 때 한 권의 책은 분별력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헝클어진 세상은 책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월드컵 16강을 기원하는, 오로지 상업적인 장단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기에 환경책 큰잔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문힐 것이 분명했다.

환경책 큰잔치 자체를 홍보하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환경을 근원적으로 이해해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떨칠 수 없어 가을로 연기를 결정" 했다. 개발과 발전, GNP, 선진국이라는 신화에 세뇌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책 큰잔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환경' 하면 물, 대기, 폐기물 등 이렇게 이해하죠. 쉽게 말하면 법률이 정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이렇게 되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박병상 소장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

다. PPM이니 BOD, COD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막는다고 박 소장은 생각한다. 환경에 있어 '기준치'는 대개 임의적인 것이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다.

또한 뒤처리용일 수밖에 없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세인들에게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다. 결국 기준치라는 것은 '이만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낳게 된다. 박병상 소장 등이 환경책 큰잔치를 구상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환경은 모든 영역에 접목 가능

박병상 소장은, 환경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과 과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환경에 관련한 과목은 두말할 것도 없고 경제학, 철학, 공학 등과도 그렇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그 터전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이 기틀을 마련했고, 지금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고 ‘기준치’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기준치 이하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환경을 그야말로 강 건너 불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박병상 소장은 “환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티 나게는 아니지만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환경책 큰잔치가 그런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박 소장은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말로 환경책 큰잔치의 현 상황을 말해 주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비한데, 환경책 큰잔치에 대한 관심은 말해 무엇하랴.

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선 종교인들은 포커스를 받았지만 정작 새만금은 이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천성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지울 스님은 곡기를 끊었지만 곧 천성산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야 말 것이다. 환경은 '반짝' 하고 만다.

사실 그 옛날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절도 아닌데, 모두

들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테크, 투기 등 제 살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박 소장은 이런 것에 그다지 실망하지는 않는 눈치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700회를 넘기니까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 보면, 우리 환경책 큰잔치도 10년, 20년 그냥 묵묵히 하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어요.”

속도에 대한 반성 없이 환경도 없다

박병상 소장이 오히려 걱정하는 건 인문학의 위기, 거기에 일조하는 인터넷이라는 괴물이다.

“생명공학은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인문학과 철학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인문학을 소통의 수단이고 결국 책도 그런 건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황우석 사태’의 본질도 결국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이 박 소장의 판단이다.

지울 스님이 지적한 것처럼, “천성산 문제는 비단 천성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속도에 대한 반성”일 것이다. 생명에는 대안이 없음에도 우린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속도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의 환경과 생명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자고 오히려 박병상 소장이 먼저 말을 건넨다.

“5년 정도 지났으니 농약에 찌든 대지가 살아나듯 우리 마음도 생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개발 소용돌이가 워낙 드세 환경책의 메시지가 아직 작게 들리지만, 5년이 된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문**

취재_장동석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